

투데이 칼럼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에서 확인된 가야의 진상

'일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떠올린다. 지리적으로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남겨진 아픈 역사적 기억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의 층위를 만들어 놓았다.

필자는 최근 장수군 고대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가야 역사 자료의 실재와 그 의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수도 도쿄를 찾았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답게 거리는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는 분주한 일상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답사의 마지막 날,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일본의 대표적 문화기관인 국립 도쿄 박물관(Tokyo National Museum)이었다. 1872년(메이지 5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박물관으로, 분관·도요관·효케이관·헤이세이관·흐류시보물관 등 여러 전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헤이세이관에는 아시아 각국의 고고학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발견이 있었다.

전시된 고고 유물 가운데 일부가 장수군 삼봉리 고분군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가야계 유물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안 내문에는 '백제와 가야의 영향을 받은 고대 일본 사회의 물질문화'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일본의 대표



최 훈 식  
장수군수

박물관에서 이처럼 솔직하게 '가야의 영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5~6세기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 지역의 교류 관계를 나타낸 지도였다. 그 지도에는 철기문화와 제철문화의 확산 경로가 한눈에 표현되어 있었고, 백제·신라·가야 등 한반도의 고대국 가들이 일본열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 지도 속 '가야(伽倻)'의 중심 위치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에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부안 축막동유적(지도 표기명 '축교동유적')이 평가되어 있었고, '고령(대가야)'과 '김해(금관가야)'가 각각 별도로 표기된 가운데, '가야'의 핵심점이 장수군으로 찍혀 있었다.

동행한 일행 모두가 동시에 외친 말은 "유레카!"였다. 왜 일본의 국

립박물관 지도에서 가야의 위치가 장수군으로 표시되어 있을까?

곧바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고고학자 도쿠라 세이지가 장수 삼봉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도굴을 감행했던 사건,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報)'에 기록된 장수의 '보만두형 고분' 자료가 떠올랐다. 후시 그대의 조사기록이 일본 학계에 남아, 후대 지도 제작 과정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주말이라 박물관 학예사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가야의 중심이 장수군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발견이었다.

지금까지 장수군은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유일하게 가야문화가 전해진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삼봉리 고분군, 대적골 고분군 등 수많은 유적이 국가사적 및 도 기념물로 지정·보존되고 있으나, 그동안

사료의 부족 탓에 '가야의 변방'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표적 역사박물관, 그것도 국립기관이 장수를 가야의 중심 위치 중 하나로 표기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금 확실하게 되었다. 가야의 역사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그 미완의 역사를 풀어낼 열쇠가 바로 장수군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늘날 장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야·백제·마한·신라·후백제 다섯 역사문화권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고대문화의 융광로'이자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교통의 요지, 문명의 교차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장수군이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립도쿄박물관의 그 지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 장수군은 가야문화를 포함한 다섯 역사문화권의 실체와 위상을 정리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재해석될 수도 있다.

"장수군의 역사는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이 문장은 지금, 장수군이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 사설

### 새해 달라지는 정책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을 경우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되는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또 건기차 화재에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도 생긴다.

2026년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 주 40시간을 꼭 채워 일하면 월급으로 215만 원 이상을 받는다.

3월부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금 협상 정도만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반대도 합법적인 쟁의 사유가 된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돼,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다.

10시 출근제를 선택한 직원 1명

당 월 30만원을 해당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은 세금 혜택이 커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급된다. 청년과 노후를 위한 금융 혜택도 있다.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된다. 3년간 매월 50만 원을 부으면, 만기 때 2,000만 원 넘는 목돈을 쫓 수 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 종교계 불법 쪼개기 후원

일부 종교계의 초기 후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통일교 핵심 인사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은 한화사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전주평화연합 UPF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송 전 회장의 경우 UPF 자금으로 후원금을 준 뒤 교단으로부터 VIP 상의비 명목으로 금액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025년 12월 24일과 26일 송 전 회장을 두 차례 불러 한 총재 등 정치권 로비에 대한 뒷선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이어 28일에는 정 전 실장을 조사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수사팀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 사건부터 송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 전 세계본부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CES2026, LG 올레드 에보 G6 촬영하는 관람객



6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2026' LG 전자 전시관에서 한 관람객이 신형 플래그십 LG 올레드 에보 G6를 촬영하고 있다. 에보 G6는 사용자 취향에 맞춰 큐레이션 된 예술 작품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웹 OS 기반 서비스 'LG 갤러리+'를 탑재했다.

###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성명 서명 후 악수하는 정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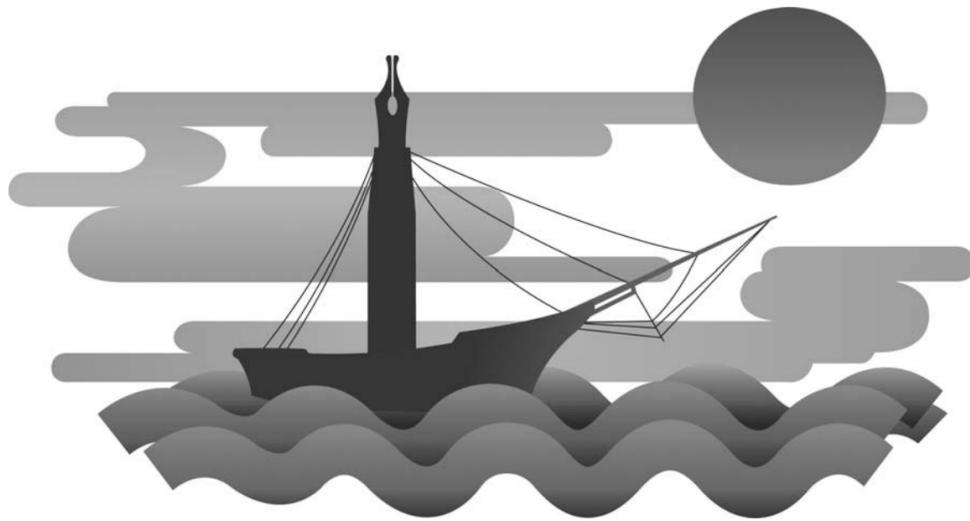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부터),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가 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에서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안전보장 성명에 서명 후 손을 맞잡고 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